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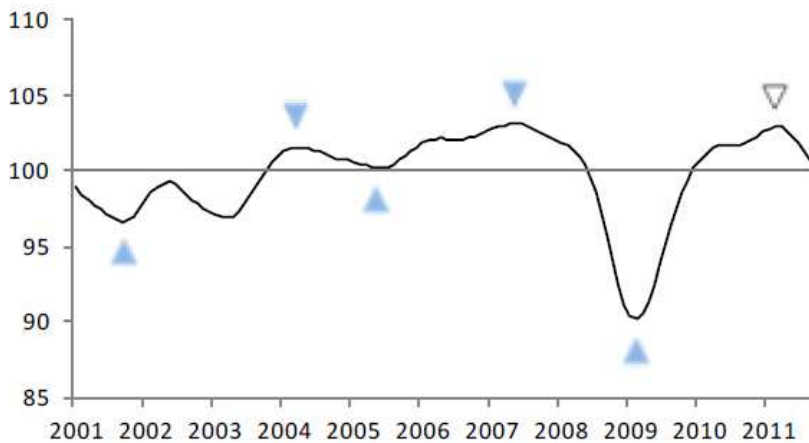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7개월 연속 하락

김세중 선임연구원

■ OECD의 34개 회원국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가 높아짐

- 9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5p 하락한 100.4로 나타나면서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중 일본, 러시아, 미국 등 3개국 경기선행지수는 장기평균 수준인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유로존은 모두 100 이하로 하락함.
- 특히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기선행지수는 8월 100.4에서 9월 99.1로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0%에서 2012년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 정부부채 규모 감축 압력에 따른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창업활동율이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 삭감 압력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나 2011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창업활동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르게 하락한 창업활동율은 2010년 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율이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기존 사업의 파산율은 금융위기 당시 가파르게 상승한 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IMF는 11월 14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전망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경기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가난한 국가들에게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함.

-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1.5%p 하락할 경우 가난한 국가의 성장률은 1%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빈곤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 IMF는 지난주 선진국이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또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가난한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기 힘들며, 선진국들도 이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2012년에 글로벌 경기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등, 11/15)